

‘세월호 참사’ 그 때처럼 ...

임형주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다



캠페인송 ‘너에게 주는 노래’ 헌정 ... 음원 수익금 전액 기부

“이럴 땐 희망 버리지 말아야
내 노래가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불씨 되기를”

‘세월호 헌정곡’으로 많은 이에게 위안을 준 팝페라 테너 임형주(3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래를 한다.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1일 정오 디지털 싱글 ‘너에게 주는 노래(A Song For You)’를 발매하고, 이 곡을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희망 캠페인송으로 헌정한다. 또 오는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캠페인 동

안 모인 음원 수익금 전액을 한적에 기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자 구호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임형주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들었다”며 “부족한 제 노래가 국민 여러분께 위로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헌정한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음원 수익금 5700만원 전액을 한적에 기부했다. 한적은 “약 15년 동안 헌정 홍보대사를 거쳐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형주 씨의 나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놀랍다”며 “이 노래가 갑작스러운 감염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위로가 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송의 음원과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난달 31일 정오부터 국내 각종 음악 사이트 및 한적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너에게 주는 노래’는 절망하는 당신 옆에서 언제나 노래를 불러 힘이 되어 주겠다는 위로로 전하는 곡이다. 임형주 특유의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때론 지쳐 쓰러지겠지만 하지만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어 / 격정 마 내가 힘이 돼줄게’ 등의 따뜻한 가사와 어우러져 먹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곡은 1998년 임형주 데뷔 앨범 ‘위스퍼스 오브 호프’(Whispers Of Hope)에 처음 수록됐고 2016년 정규 6집 ‘더 라스트 콘페션(The Last Confession)’에 재수록됐다. 소속사 디지털은 “임형주가 18년 만에 리메이크할 만큼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노래”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멜로가 체질’ 역주행이 체질?

JTBC 종영 반년만에 넷플릭스 ‘오늘의 톱 10’ 차트인

방영 내내 시청률 1%대에 머무르며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한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 종영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넷플릭스 ‘오늘의 톱 10’에 차트인하며 온라인에선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오늘 한국의 톱 10 콘텐츠’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늘 한국의 톱 10 콘텐츠’는 국내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즐겨 시청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의 시청 데이터를 집계해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한다. 2월 25일 도입된 이후부터 ‘멜로가 체질’은 이 차트에서 7~10위를 오간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28일엔 9위를 기록했고, 29일부터 박준형의 ‘외딴방 GO’와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순위 밖으로 밀렸다. 흥미로운 점은 방송 당시 ‘멜로가 체질’은 최고 시청률이 1.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JTBC가 금토 밤 11시대 드라마 블록을 개설한 이래로 가장 저조한 성적에 해당한다. 종영 드라마가 VOD 다시보기 등으로 꾸준히 회자되는 현상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방송 당시 신드롬을 몰고 오거나 기록적인 시청률을 올린 작품이다. ‘멜로가 체질’과 함께 넷플릭스 톱 10에 꾸준히 랭크된 tvN ‘사랑의 불시착’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파 3사와 SKT가 만든 플랫폼 웨이브(wave) VOD 랭킹에서도 ‘쌈, 마이웨이’(2017)나 ‘질투의 화신’(2016), ‘별에서 온 그대’(2014) 등의 드라마가 10~20위 사이에 올랐지만 이들 작품 또한 방송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큰 화제작으로 분류된다. 유튜브 채널 ‘JTBC 드라마’는 지난 20일부터 ‘멜로가 체질’ 전편을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적을 땐 약 700명에서 많을 땐 1200여명 정도로, 이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된 JTBC의 인기 예능·드라마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매력 뽐냄 ‘냥이 영화’ 보며 힐링

‘고양이와 할아버지’ ‘선생님과 길고양이’ ‘고양이 집사’
KBS 2TV 수목 드라마 ‘어서와’도 고양이 이야기

고양이를 사랑하는 애묘인들을 설레게 할 ‘냥이 영화’가 스크린에 속속 찾아온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터라 기대를 모은다. 23일 개봉하는 일본 영화 ‘고양이와 할아버지’는 섬마을에 사는 6살 고양이 타마와 ‘집사’ 할아버지가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잔잔하게 그린 작품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표지를 일본인 최초로 두 번이나 장식한 동물 전문 사진작가 이와고 미쓰아키 감독이 연출을 맡아 각기 다른 고양이들의 특징과 사랑스러움을 전문가 시선으로 담아냈다. 9일 관객을 찾는 ‘선생님과 길고양이’

도 힐링 무비다. 아내와 사별 뒤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교장 선생님이 사라진 고양이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그린다. 일본 명배우 이세이 오가타가 주연을 맡아 훈훈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길고양이들이 등장해 시선을 붙든다. 5월 개봉을 앞둔 ‘고양이 집사’는 ‘나는 고양이로소다’ 제작진이 만든 두 번째 고양이 다큐멘터리 영화다. 춘천, 성남, 부산, 파주 등 전국을 누비며 각각의 사연을 지닌 고양이들과 그들을 챙기는 집사의 삶을 담아냈다. 배우 임수정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스크린뿐만 아니라 안방극장에서도 고양이 이야기는 이어진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수목



‘고양이와 할아버지’



‘선생님과 길고양이’

드라마 ‘어서와’는 남자로 변하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작품. 배우 김경수가 인간으로 변하는 특별한 고양이 흉조 역을 맡아 전대미문의 ‘묘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중이다. 다만, 색다른 소재에도 잔잔하고 느린 전개로 시청률은 1%대로 저조한 편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얼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미래통합당 황교안>	10 좋은아침
10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미래통합당 황교안>	40 지구촌 뉴스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미래통합당 황교안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르네상스의 거장들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기본 좋은 날 10 애니갤러리 4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55 SBS 12 뉴스	00 SBS 뉴스 10 애니갤러리 4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55 SBS 12 뉴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스웃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위기탈출 넘버원 스페셜	00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00 어서와(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교향악단 말러 스페셜 05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민생당> 4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미래통합당>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어서와(재)	0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20 그 남자의 기억법(재)	00 SBS 스페셜(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10 시노스톤 프리임 4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3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0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고향건물록 남도에 살리리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0 살립하는 남자들	55 그 남자의 기억법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어서와	05 실화탐사대	00 트롯신이 떴다
11	35 KBS교향악단 말러 스페셜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영상앨범 산(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3:50 EBS 초대석	19:00 형사 가제트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0 마시와곰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45 자이언트 팽TV
07:45 개구쟁이 스머프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댕 유치원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윙스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지금 애니면 못 볼 지도, 스리밍카 라오스 -오늘을 기억해, 루앙남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0 픽시(재)	<스쿠리에 담아볼 3부 망사리에 담아볼>
09:30 페파 피그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2:40 극한직업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23:30 경이로운 지구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20 출동! 슈퍼윙스(재)	23:45 우주탐사 이야기
	17:40 뽀로로와 노래해요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일(음 3월 9일 甲戌)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작아움을 일으킨다면 중저대함을 잃을 수도 있다. 48년생 어려움은 다행히 지혜는 샘솟는다. 60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72년생 상하간의 입장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84년생 짐작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꾀하는 일은 할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54</p>	<p>午</p> <p>42년생 배짱이 검토하고 대조해보아야 한다. 54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66년생 성급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회군을 날으리라. 78년생 심기일전 한다면 활기찬 미래를 열 수 있다. 90년생 구조적인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 02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행운의 숫자 : 34, 63</p>
<p>丑</p> <p>37년생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다. 49년생 한 동안 긴박한 정황이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생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73년생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5년생 현상을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97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87</p>	<p>未</p> <p>31년생 의욕이 차서한다면 칭찬 받으리라. 43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55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67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79년생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운세로 해석할 수 있다. 91년생 기초부터 재검토 해봐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45, 97</p>
<p>寅</p> <p>38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빌을 우연히 듣게 된다. 50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62년생 농진다면 후회 막을 것이다. 74년생 핵심적인 원리만 파악한다면 쉽게 가닥이 잡힐 것이다. 86년생 강절한다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98년생 실수한다면 커다란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65, 61</p>	<p>申</p> <p>32년생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라. 4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먼 안목으로 내다보는 예지가 수반된다면 훌륭한 구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68년생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 80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92년생 바라는 것은 허망하다. 행운의 숫자 : 37, 81</p>
<p>卯</p> <p>3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1년생 모아서 의논해 보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63년생 제3자의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 짐작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하라. 75년생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87년생 낱알이 싹피어 있어야 할 때이다. 99년생 겉모습과 달리 안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4, 80</p>	<p>酉</p> <p>33년생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45년생 이르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라. 57년생 원점으로 복귀하여 재출발하는 것이 좋다. 69년생 대세에 휩쓸리다보면 웃는 얼굴을 듣게 될 것이니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남의 일에 나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93년생 수박 겉핥기식은 무의미하니 핵심 속성을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27, 93</p>
<p>辰</p> <p>40년생 여건이 풀린다. 52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64년생 공로의 급자탑이 눈부시게 빛나겠다. 76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구하라. 88년생 넘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듯함이 결과적으로 낫겠다. 00년생 의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5, 86</p>	<p>戌</p> <p>34년생 시기를 늦추고 자신을 낮추면 해결 된다. 46년생 김세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독창적인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70년생 얻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가야만 한다. 82년생 보류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94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98</p>
<p>巳</p> <p>41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에 이끌 것이다. 53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익이다. 65년생 약진의 발판이 되리라. 77년생 가장 상식적인 방안만이 합당한 결과를 낼 것이다. 89년생 약간 지연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목적은 달성 되겠다. 01년생 애로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5, 67</p>	<p>亥</p> <p>35년생 면밀하게 보살피며 위기를 넘기게 된다. 47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59년생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1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83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마라. 95년생 중도에 그만 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92</p>